

이슈페이퍼 2012-01

www.kicce.re.kr

ISSUE

P A P E R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김혜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요약	1
1. 서론	4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나. 연구내용	5
다. 연구방법	6
2. 연구의 배경	10
가. 사업 개요	10
나. 인천시 보육정책 특성	14
다. 국내 관련 연구동향	15
3. 시범사업 실시 결과	17
가.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17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23
다. 추후 이용 의사	34
4. 결론 및 정책제언	35
참고문헌	38

요약

1. 서론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천시 남동구에서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12시간 '종일형' 및 8시간 '단축형'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시간 시범사업 개요 파악
 - 이용시간 시범사업 결과를 단축형 이용 부모, 일반 종일제 이용 부모, 교사 및 운영자 입장에서 검토
 - 이용시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대안 제시
- 이용시간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단축형 이용 부모 133명, 종일제 이용 부모 125명, 총 258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 실시 10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함.

2. 시범사업 실시 결과

가. 단축형 보육 이용

- 10개 어린이집 총 921명 중 단축형 보육 이용 아동은 294명이었음.
-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는 과반수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0.4%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11.2%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4.0%는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 싫어해서임.

1) 본고는 2012년도에 수행중인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3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2 요약

-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귀가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대다수이고 조부모가 12.0%, 형제자매 2.3%임.
-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67.0%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고, 3.4%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어린이집 도착시간과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으로 산출한 이용시간은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이 2월에는 각각 5시간 38분, 7시간 5분이고, 3월에는 각각 6시간 16분, 7시간 57분으로 1시간 30~40분정도의 차이를 보임.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 부모들은 보육료 20% 인하분에 대하여 걱정하다는 비율이 52.6%이고 46.6%는 더 낮추어야 한다고 함.
- 단축형 이용으로 삭감된 보육료 45.1%가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이외 27.1%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27.1%가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삭감된 비용을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45%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특별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12%로 낮음. 이는 특별활동 개수를 추가하였다고보다는 어린이집 외부 특별활동 등 더 비싼 특별활동으로 특별활동을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냄.
- 단축형 어린이집 이용으로 30.8%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5.8%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27.8%의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 및 비용 인하 등 시범사업에 의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61.7%가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음.
- 종일제 아동 부모는 13.6%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12.5%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우리 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임.
-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심층면접 결과, 단축형 이용 시범

사업 실시가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 면을 강조하였음.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단축형 이용자는 93.2%, 미이용자는 39.2%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3. 정책제언

-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설계상 단축형 보육료 감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의 변동 없음만을 고려한 것으로, 시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함을 전제함.
 - － 보육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형 보육은 보육료를 삭감해주고 8시간 이상 보육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더 받거나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어야 자생적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함.
 - 시범사업의 결과로 단축형 아동의 이용시간의 감소 결과가 미미함. 단축형 아동의 시범사업 전후 이용시간은 평균 약 40분이고, 단축형과 종일제는 평균 1시간 30~40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이용시간 행태에 부모 부담 비용을 낮추어 준 측면이 있음.
 - － 오후에 보육대상 아동이 다소 감소한 교사나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이를 아동에게 특별활동비 등으로 더 투자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동은 일부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시간 획일화 제도 개선은 전반적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취업모를 전제로 하는 12시간 종일제 보육이라는 명분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보육이라는 접근이 필요함.
 - － 현재의 보육료는 8시간 보육으로 기본 보육시간을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육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의 설계가 있어야 함.
 - － 8시간이나 그 이상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어야 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12시간(07:30~19:30)으로 하여 제반 기준 적용함.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정책 강화와 더불어 종일제 원칙이 강조되면서 모의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대체로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음. 부모들은 반일제와 종일제 비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 편의에 의하여 어린이집에 자녀양육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모들의 상당수는 집이나 이웃이 같이 놀 형제나 또래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길게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임.
 - 같이 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집에 오면 엄마가 자녀와 놀아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오래 머물기를 바람.
 - 또한 획일화된 보육료 정책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종일제 운영 법적 규정 적용 강화에 의해 어린이집들이 대체로 종일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반일제 이용을 허용함.
 -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낮잠을 자지 않거나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귀가 후 학원 이용, 취업모 중 조부모나 기타 성인이 귀가 후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녀 등이 반일제를 이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반일제 이용 시 보육료를 깎아 주고 있음. 이는 반일제 요구에 대한 어린이집의 대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일제 보육 이용 시 보육료 감액이 반일반 이용 수요를 창출하기도 함.
-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7시간 25분 정도이고, 16시 이전에 전체의 44.3%가 하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 운영자, 이용자 및 교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함.
 - 정부의 보육료 단가(또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도 실제 이용시간 고려 없이 12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시간 이용을 초래함.

-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30분으로, 근무 여건 악화 및 학습 준비 시간 부족으로 인한 보육 품질 저하 야기
 - 16시 전후로 하원하는 영유아와 이후 계속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반 편성·교사 배치 기준이 이전 시간대와 동일하여 현실성 부족 및 활용 가능한 보육프로그램 미비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야기
 - 일찍 귀가하거나 필요 없이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는 것 모두 보육 재정 낭비요인이 발생함.
- 외국은 대부분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 이용시간 및 지원체계를 갖춘.
- 스웨덴은 실제 이용시간대는 반일제에서 시간연장, 야간보육 등 다양하고,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당 15시간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는 취업모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주당 40시간까지 지원함.
 - 호주도 어린이집 이용 단위는 시간이며, 부모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지원하고, 이외는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50시간까지 지원함.
-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 이용시간 및 지원체계에 따라 비용, 반 배치, 프로그램이나 교사 배치 등이 매우 유연하게 적용됨.
- 이에, 현장의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다양화)할 필요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12시간 '종일형' 및 8시간 '단축형'으로 운영
-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천시 남동구에서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둬.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용시간 시범사업 개요 파악
- 둘째, 이용시간 시범사업 결과를 단축형 이용 부모, 일반 종일제 이용 부모, 교사 및 운영자 입장에서 검토
- 셋째, 이용시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대안 제시

다. 연구방법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 선행 연구 등 관련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함.
 - 기존 연구 중 이용시간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함.
 - 정부의 시범사업 개요를 검토함.

2) 부모 설문조사

- 이용시간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단축형 이용 부모 133명, 종일제 이용 부모 125명, 총 258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대상은 2012년 해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2013년 3월에도 계속 다니는 아동으로 한정함.²⁾
 - 조사 대상 아동 명단은 인천시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사용하였음.
 -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3월임.

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총 10개소 어린이집이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를 위한 부모 설문조사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2012년 3월에도 계속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모로 한정하였기에 최종 조사는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표 1〉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단위: 명(%)

구분	내용
단축형 이용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형 이용 이유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양육자 - 단축형 이용 시, 특기교육 시간 변화정도/부모와 지내는 시간 변화정도/또래와 지내는 시간 변화정도/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변화정도 - 보육료 인하분의 적정 여부 - 인하된 보육료 사용처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
단축형 미이용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형 미이용 이유 - 단축형 이용아동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미치는 영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하원/등원 시간 - 희망하는 어린이집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 어린이집 내외 특기교육 개수 및 교육비용 - 향후 서비스 재이용 의향 - (인구학적 특성) 아동성별, 출생아 순서, 가족유형, 부모의 취업여부, 부모의 출퇴근 시간, 월평균 가구소득, 보육료 지원수혜 여부

〈표 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연령			모취업		
만3세	1.5	19.2	종일제 출근	16.8	43.4
만4세	64.7	44.0	시간제 출근	7.2	10.7
만5세	33.8	36.8	휴직 중	1.6	-
성별			자영업(가족 고용)	3.2	8.2
남	48.9	48.8	재택(가내작업)	-	2.5
여	51.1	51.2	미취업, 구직 중	0.8	2.5
출생순위			미취업	70.4	32.8
첫째	65.4	52.8	가구소득		
둘째	30.8	41.6	150만원 미만	4.7	10.2
셋째	3.8	5.6	150~200만원 미만	9.4	7.6
가구유형			200~300만원 미만	40.2	27.1
핵가족	88.0	76.8	300~500만원 미만	38.6	42.4
확대가족	8.3	16.0	500만원 이상	7.1	12.7
한부모가족	3.0	7.2			
기타	0.8	-			
계(수)	100.0(133)	100.0(125)	계(수)	100.0(133)	100.0(125)

□ <표 2>, <표 3>은 조사대상자 특성을 나타냄.

- 조사 완료된 단축형 이용자는 대체로 4,5세이고 어머니는 미취업이 70.4%를 차지하지만 취업모도 대략 30%가 되며,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0.2%이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8.6%임.
- 단축형 미이용자는 대체로 4,5세가 다수이지만 3세아도 19.2% 포함되어 있고, 어머니는 미취업이 32.8%로 취업모가 다수이며,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12%이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42.2%로 단축형 이용자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음.
- <표 3>은 아동연령별 보육료 지원 수혜 비율을 나타냄.

<표 3> 설문조사 대상자 보육료 지원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2012년 2월 이전	2012년 3월 이후	(수)	2012년 2월 이전	2012년 3월 이후	(수)
전체	85.7	92.5	(133)	83.2	88.8	(125)
만3세	100.0	100.0	(2)	79.2	83.3	(24)
만4세	86.0	88.4	(86)	87.3	83.6	(55)
만5세	84.4	100.0	(45)	80.4	97.8	(46)
X ² (df)	-	-		1.184(2)	5.964(2)#	

p < .1

3) 원장, 교사 면담

□ 시범사업 실시 10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함.

<표 4>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심층면담 내용

대상	질문
원장 및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운영현황 -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변화 -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효과 및 문제 -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 심층면담 내용은 <표 4>와 같고, 면담 대상자는 특성은 <표 5>, <표 6>과 같음.

<표 5>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심층면담 교사 특성

단위: 세, 년, (명)

구분	지역	교사 특성		기관유형	(현원/정원)
		연령	경력		
1	인천	37	4	민간	(141/150)
2	인천	36	10	민간	(46/ 46)
3	인천	41	10	민간	(57/ 59)
4	인천	27	5	민간	(72/ 72)
5	인천	42	8	민간	(45/ 49)
6	인천	43	7	민간	(47/ 48)
7	인천	25	6	민간	(153/193)
8	인천	27	6	민간	(110/126)
9	인천	28	6	민간	(56/ 92)
10	인천	40	7	민간	(194/198)

<표 6>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심층면담 원장 특성

단위: 세, 년, (명)

구분	지역	원장 특성		기관유형	(현원/정원)
		연령	경력		
1	인천	41	10	민간	(46/ 46)
2	인천	46	9	민간	(57/ 59)
3	인천	45	10	민간	(72/ 72)
4	인천	45	11	민간	(45/ 49)
5	인천	41	12	민간	(47/ 48)
6	인천	45	18	민간	(153/193)
7	인천	45	15	민간	(194/198)

4) 관계자 자문회의

- 시범사업 관계자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

2. 연구의 배경

가. 사업 개요

1) 보육과정별 시간

-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닫는 운영시간은 현행 12시간 유지하고 운영시간 內에서 보육과정(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 도입하여, 보육과정은 크게 정규 보육과정과 연장 보육과정으로 구분함.
 - 정규 보육과정은 '종일형'과 '단축형'으로 구분함.
 - '종일형'은 12시간의 보육과정(07:30~19:30)으로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종일형' 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함.
 - '단축형'은 8시간의 보육과정(07:30~15:30)임.
 - 연장 보육과정은 '단축형 연장'과 '야간 연장형'으로 구분함.
 - '단축형 연장'은 '단축형' 이용 부모가 일시적인 수요에 따라 추가 이용
 - '야간연장형'은 '종일형'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수요에 따라 19:30분 이후의 야간에 운영하는 보육과정임.

2) '종일형'과 '단축형'의 반 편성

- 어린이집 규모, 편의 및 지역별 부모 수요에 맞추어, 가능한 경우 연령별로 '단축형' 전용반 및 '종일형' 전용반을 편성하며, '단축형' 보육시간대에는 연령별 반 편성 기준을 현행과 동일함. 어린이집 운영 형편 등에 따라 별도로 반을 재편하지 않고, 종전의 반을 유지하여 운영 가능함.
- '단축형' 이후의 시간대에는 '단축형'을 이용하고 하원하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계속 이용하는 영유아 간에 '오후 혼합반' 재편성 가능함.

3) 교사 배치 및 보육프로그램

- '단축형'과 '종일형' 정규반에는 현행처럼 전담 보육교사 배치하고, '단축형' 이후 시간대의 '혼합반'에는 시간제 보육교사 배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함.
 - 시간제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시간 단위로 합산하여 근무경력으로 산입
- 보육프로그램은 '단축형'과 '종일형' 정규반은 현행처럼 표준보육프로그램 운용함.
 - '단축형' 이후 시간대의 '혼합반'에는 연령별 혼합반에 걸맞은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

4) 보육과정별 보육료

- 시범사업 시, 단축형(8시간)과 종일형(12시간)의 보육료 격차를 80 對 100 비율로 적용하여 단축형과 종일형 과정의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단축형 과정 이용 시 부모의 추가 부담분을 인하
 - 만 3세는 부모 추가 부담분을 51천원 인하, 만 4·5세 보육료는 부모 추가 부담분을 49천원 인하
 -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소득하위 70% 가구의 영유아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일반아동도 해당
 - 단축형 과정의 보육료의 급·간식비에는 급식비 1회와 간식비 1회가 포함
 - 개별 어린이집의 단축형 수납액은 기존 종일형 수납액의 80% 범위에서 자율 결정

5) 시범사업 기한 및 소요재원

- 시범사업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간 어린이집 10개소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2011년 10월~2012년 2월(5개월간)임.
- 소요재원은 영유아보육료 예산으로 충당, 전액 국비로 지원함.
 - 2011년도 3개월분 예산 40,500천원임.

6) 보육과정별 어린이집 이용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

- '단축형' 보육과정을 선택한 부모는 15:30분 이전에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인도(하원)하여야 함.
 - 15:30분 이후 시간대에 특별활동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단축형'이 아닌 '종일형' 보육과정으로 간주함.

단축형 연장 보육과정 이용

- 단축형' 보육과정을 선택한 부모가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15:30분을 경과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는 있음.
 - 하루 이용시간, 이용사유 제한은 없으며, 19시 30분 이후에도 이용 가능
-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의 경우, 월 10시간 한도로 단축형 연장 보육료를 지원
 -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월 60시간의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연장보육에 따른 단축형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해당아동을 시간연장반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의 이용시간(월 총 이용시간)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야간연장형 보육과정 이용

- 단축형 보육과정을 선택한 부모의 경우 19시 30분 이후의 시간대에도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단축형 연장 보육과정에 지원하는 월 10시간 이외에 현행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부담(시간당 2,700원)으로 이용하여야 함.

7)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지원 내용

- 어린이집별로 '단축형' 보육과정을 선택한 유아 인원 및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일수에 따라 종일형·단축형 수납액 차액을 지원
- 보육료지원 아동이 단축연장 보육을 이용할 경우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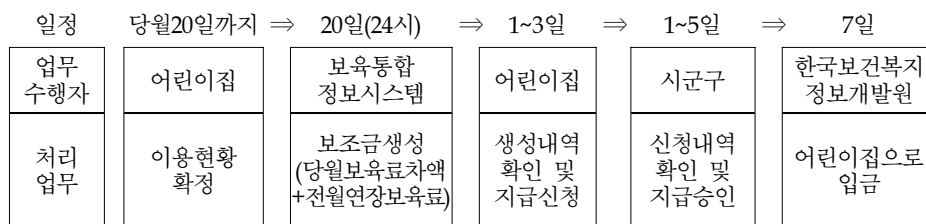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소득하위 70% 가구의 영유아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일반아동도 비용지원
- 시범사업 기간 중, 보조금은 국비 100%로 함.
- 지자체 특수시책으로(민간 어린이집 저소득층 차액지원) 부모부담액을 지원 하는 아동이 단축형을 선택한 경우 시범사업 차액보조금 미지원

□ 지원 금액

-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일수(어린이집 출석일수) 구간별로 지원하고, 입퇴소 월은 일할 계산으로 지원
 - 1인당 기준지원단가는 종일형 수납액과 단축형 수납액 차액
 -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일수가 11일 이상: 지원단가의 100% 지원
 -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일수가 6~10일: 지원단가의 50% 지원
 -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일수가 1~5일: 지원단가의 25% 지원
 - *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일수는 어린이집 출석일수와 동일하게 반영
- 단축형 보육과정 이용 부모의 단축형 연장 보육과정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
 - 매월 지원한도액(10시간, 27천원) 내에서 비용지원

8)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자료: 보건복지부(2011).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안내

[그림 1] 시범지역 보육료 차액지원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나. 인천시 보육정책 특성

- 인천시는 2010년 ‘무상보육 실현’을 3대 시정 핵심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희망보육 도시를 보육정책 비전으로 삼고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보육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1) 4세 무상보육

- 2011년 12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을 통과하여 무상보육 추진과 공보육 체계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만 4세 무상보육임.
 -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은 유아학비 및 보육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으므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 및 교육 지원에 있어 만 4세 아동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5세의 아동 총 17,531명에게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2016년에는 모든 아동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제한

-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은 부모와 어린이집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기관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을 결정함. 인천시의 경우,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한도를 영유아 1인당 2과목 이내, 최대 3만~4만원으로 제한하고, 만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금액을 제한하고 있음.
 - 인천시 정부지원시설의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최대 월 3만원,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의 영유아는 최대 월 4만원씩을 특별활동비로 수납할 수 있음.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 시, 가장 낮은 수치임(표 7 참조).

〈표 7〉 시도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2012년

단위: 원

구분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월)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인천	30,000	40,000	40,000
서울	구별위임	구별위임	구별위임
부산	60,000	70,000	70,000
대구	60,000	70,000	70,000
광주	90,000	90,000	90,000
대전	50,000	60,000	60,000
울산	85,000	85,000	85,000
경기	시군위임	시군위임	시군위임
강원	70,000	70,000	70,000
충북	90,000	100,000	100,000
충남	100,000	100,000	100,000
전북	95,000	95,000	95,000
전남	70,000	80,000	80,000
경북	60,000	60,000	60,000
경남	80,000	85,000	85,000
제주	60,000	60,000	60,000

자료: 각 시도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고시문

주: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를 한 항목으로 묶어서 적용

다. 국내 관련 연구동향

- 시간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정책 관련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에 추진되었음.
 - 2011년(서문희·양미선, 2011)에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화를 조사하고 단축형 보육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본 시범사업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보육시간 단축형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부모가 42.4%임. 반일제 및 단축형 보육에 대한 요구는 있으므로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
 - － 제도 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단축형 이용희망자도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부모들은 실제보다 더 긴 시간 어린이집에 머물기를 희망함.
 - － 단축형과 종일제 보육료는 차이가 나야 하겠으나 부모들이 생각하듯이 반드시 보육비용이 이용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음을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부모들은 단축형 보육이 자녀 학원 이용 등 사교육 확대로 가계 부담이나 아동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도 감안하여야 함. 일부 부모는 귀가 후 양육 부담이나 어머니 개인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귀가 후 사교육으로 가계 부담이 늘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음.
- 2009년에는 부모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용시간 원칙을 설정하고, 이용시간별 적정 보육료를 추정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정을 추정하고, 이용시간 및 비용 차이를 아이사랑카드 바우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제도 정착방안을 제안하였음(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 2010).
- 2008년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용시간 유형을 기본형과 12시간 종일제형으로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대상도 모의 취업 등 조건을 두어 이용시간 자격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음(서문희·박수연, 2008).
- 기본형의 이용시간은 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오후 2~3시에 귀가하고, 0, 1세 영아에 한하여 평일 하루 3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하였고, 종일제는 모의 취업이나 직업교육, 또는 가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아동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소요 비용을 추정하였음.
- 2006년 연구에서는 만 2세 이상 아동은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연장제 이용으로 구분하고, 0세아와 만 1세아에게는 취업모 자녀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서문희·나정·최혜선, 2006).
- 또한 김명순, 김혜금, 안현숙과 이운선(2009)은 다양한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간을 제안하였음.
- 다양화된 보육시간을 유형별로 집중되도록 배치하여 보육운영시간에 따른 교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장형이나 일시보육형의 효율적 운영 및 선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3. 시범사업 실시 결과

가.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1) 사업 실적

-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제공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인천 남동구 10개 민간어린이집으로 소규모임.
- 10개 어린이집 총 921명 중 단축형 보육 이용 아동은 294명이었음.

〈표 8〉 단축형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어린이집	현원	단축형 이용 아동	비율
1	141	34	24.1
2	46	4	8.7
3	57	19	33.3
4	72	48	66.7
5	45	6	13.3
6	47	6	12.8
7	153	37	24.2
8	110	40	36.4
9	56	16	28.6
10	194	85	43.8
총계	921	294	31.9

자료: 인천시 남동구청 내부자료(2012. 3)

2) 선택 및 미선택 이유

-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과반수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0.4%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이며 11.2%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4.0%는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 싫어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음(표 9 참조).

〈표 9〉 단축형 이용 사유: 이용자

단위: %(명)

구분	가격이 저렴해서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 싫어해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	기타	계(수)
전체	52.8	30.4	4.0	11.2	1.6	100.0(133)
연령						
만3세	50.0	50.0	-	-	-	100.0(2)
만4세	57.0	27.9	5.8	7.0	2.3	100.0(86)
만5세	48.9	28.9	2.2	17.8	2.2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42.9	19.0	4.8	33.3	-	100.0(21)
시간제 출근	66.7	11.1	-	22.2	-	100.0(9)
휴직 중	100.0	-	-	-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25.0	75.0	-	-	-	100.0(4)
미취업, 구직 중	100.0	-	-	-	-	100.0(1)
미취업	53.4	34.1	4.5	5.7	2.2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3.3	16.7	-	50.0	-	100.0(6)
150~200만원 미만	66.7	8.3	16.7	-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56.9	31.4	7.8	3.9	-	100.0(51)
300~500만원 미만	59.2	26.5	-	14.3	-	100.0(49)
500만원 이상	44.4	55.6	-	-	-	100.0(9)

- 자영업자 이외 취업모는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미취업모와 자영업을 하는 모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높음. 취업모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축형을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 가구소득별로 차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단축형을 선택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귀가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대다수이고 조부모가 12.0%, 형제자매 2.3%임(표 10 참조).
- 엄마가 일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보지만 취업모의 경우 종일제 출근하는 경우에도 52.4%가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음.

〈표 10〉 어린이집 하원 후 자녀 보육자: 이용자

단위: %(명)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계(수)
전체	85.7	12.0	2.3	100.0(133)
연령				
만3세	100.0	-	-	100.0(2)
만4세	83.7	15.1	1.2	100.0(86)
만5세	88.9	6.7	4.4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38.1	52.4	9.5	100.0(21)
시간제 출근	88.9	11.1	-	100.0(9)
휴직 중	100.0	-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25.0	50.0	25.0	100.0(4)
미취업, 구직 중	-	100.0	-	100.0(1)
미취업	100.0	-	-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83.3	1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91.7	8.3	-	100.0(12)
200~300만원 미만	94.1	3.9	2.0	100.0(51)
300~500만원 미만	85.7	12.2	2.0	100.0(49)
500만원 이상	44.4	55.6	-	100.0(9)

-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미취업모를 중심으로 보면 29.2%는 모가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나 58.3%는 모 미취업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이고 12.5%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표 11 참조).
- 전체적으로는 67.0%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고, 12.5%는 모가 미취업이나 다른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나 17.0%는 모 미취업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이고 3.4%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응답자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표 11〉 단축형 미이용 사유: 미이용자

단위: %(명)

구분	부모가 다 취업중	모 미취업이나 어린이집이 아이에게 더 좋음	모 미취업이나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계(수)
전체	67.0	17.0	12.5	3.4	100.0(88)
연령					
만3세	42.9	28.6	28.6	-	100.0(7)
만4세	68.2	18.2	9.1	4.5	100.0(44)
만5세	70.3	13.5	13.5	2.7	100.0(37)
모취업					
취업(휴직 포함)	100.0	-	-	-	100.0(58)
미취업, 구직 중	-	-	100.0	-	100.0(3)
미취업	-	58.3	29.2	12.5	100.0(2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2.9	14.3	28.6	14.3	100.0(7)
150~200만원 미만	42.9	42.9	14.3	-	100.0(7)
200~300만원 미만	72.7	4.5	13.6	9.1	100.0(22)
300~500만원 미만	65.8	21.1	13.2	-	100.0(38)
500만원 이상	83.3	16.7	-	-	100.0(12)

주: 시범사업 미이용자(125명) 중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37명)를 제외한 나머지 미이용자(88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3) 이용시간

가) 등하원 시각

-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어린이집 등원시각은 차이가 있음. 시범사업의 마지막 달인 2012년 2월을 보면 단축형 이용 아동은 8시 30분 이후에 등원하고, 약 90%는 9시 이후에 등원하였음(표 12 참조).
 - 시범사업이 끝난 2012년 3월과 비교해 보면 단축형 이용자나 일반 아동이나 등원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시범사업의 마지막 달인 2012년 2월을 살펴보면 단축형 이용 아동은 27.8%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고 47.4%가 오후 3시~3시 반 사이, 14.3%가 오후 3시 반~4시 사이에 귀가하여 모두 89.5%가 오후 4시 이전에 귀가하고 약 10% 정도가 4시 이후에 귀가함.

〈표 12〉 어린이집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2012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8시 이전	-	5.6	-	5.6
8시~8시30분 이전	-	6.4	1.5	5.6
8시30분~9시 이전	10.5	23.2	9.8	24.8
9시~9시30분 이전	33.8	25.6	34.6	25.6
9시30분~10시 이전	42.9	28.0	44.4	28.0
10시 이후	12.8	11.2	9.8	10.4
계(수)	100.0(133)	100.0(125)	100.0(133)	100.0(125)

〈표 13〉 어린이집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2012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15시 이전	27.8	5.6	17.3	1.6
15시~15시30분 이전	47.4	9.6	42.1	13.6
15시30분~16시 이전	14.3	4.0	15.0	4.0
16시~16시30분 이전	6.0	7.2	9.0	8.8
16시30분~17시 이전	-	10.4	5.3	9.6
17시~17시30분 이전	3.0	26.4	6.0	27.2
17시30분~18시 이전	0.8	11.2	3.0	13.6
18시 이후	0.8	25.6	2.3	21.6
계(수)	100.0(133)	100.0(125)	100.0(133)	100.0(125)
X ² (df)	139.364(7)**		92.018(7)**	

*** $p < .001$

- 단축형을 신청하고도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사례도 있음. 단축형 미이용 아동과는 다른 귀가 시각을 보임.
 - 시범사업이 끝난 2012년 3월과 비교해 보면 일반 아동 귀가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17.3%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고 42.1%가 오후 3시~3시 반 사이, 15.0%가 오후 3시 반~4시 사이에 귀가하여 74.4%가 오후 4시 이전에 귀가하고, 1/4 정도는 4시 이후에 귀가함. 즉, 전반적으로 귀가시각이 늦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시범사업 시 단축형 이용아동의 상당수는 3월에도 비교적 일찍 귀가함.

- 이는 시범사업 이전에도 비교적 일찍 귀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서문희·양미선, 2011) 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26.7%가 3시 이전에 귀가한다는 조사결과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원시간(어린이집 도착시간)은 2012년 3월, 2월 모두 9시 30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원시간(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도 2012년 3월, 2월 모두 15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14 참조).

〈표 14〉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최빈치

단위: (명)

구분	등원시간 최빈치	하원시간 최빈치
2012년 3월	9시 30분 (52)	15시 00분 (58)
	9시 00분 (47)	17시 00분 (32)
2012년 2월	9시 30분 (55)	15시 00분 (55)
	9시 00분 (46)	17시 00분 (28)

나) 이용시간

- 어린이집 도착시간과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으로 산출한 이용시간은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이 차이를 보임(표 15 참조).
- 2월에는 각각 5시간 38분, 7시간 5분이고, 3월에는 각각 6시간 16분, 7시간 57분임.

〈표 15〉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2월	3월	(수)
단축형	5시간 38분 (1시간 21분)	6시간 16분 (1시간 44분)	(133)
종일제	7시간 5분 (3시간)	7시간 57분 (2시간 43분)	(125)
전체	6시간 48분 (1시간 55분)	7시간 3분 (2시간 43분)	(258)

- 한편으로 부모들이 바라는 어린이집 이용 운영시간은 전체적으로 10시간 정도이며,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약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임(표 16, 표 17 참조).

- 어린이집 희망 운영시간은 단축형 부모는 평균 9시간 25분, 종일제 부모는 10시간 31분임.

〈표 16〉 어린이집 희망 시작·종료시간

단위: %(명)

구분	시작			구분	종료		
	전체	이용자	미이용자		전체	이용자	미이용자
8시 이전	16.9	10.5	24.0	17시 이전	13.5	23.3	3.2
8시~9시이전	47.5	44.4	51.2	17시~18시이전	12.3	15.0	9.6
9시~10시이전	31.3	40.6	21.6	18시~19시이전	21.2	20.3	22.4
10시 이후	3.9	4.5	3.2	19시~20시이전	40.1	36.1	44.8
				20시 이후	12.3	5.3	2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수)	(258)	(133)	(125)	(수)	(258)	(133)	(125)
X ² (df)		15.2(3)**		X ² (df)		33.4(4)***	

** p < .01

〈표 17〉 어린이집 희망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희망 운영시간 (표준편차)	(수)
단축형	9시간 25분 (2시간 17분)	(133)
종일제	10시간 31분 (2시간 5분)	(125)
전체	9시간 56분 (2시간 5분)	(258)

-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자신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을 향상 열어 두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단축형 시범사업에 따른 변화를 이용 부모와 아동 측면, 종일제 이용 부모, 운영자와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1) 이용자 측면

가) 보육료 인하

- 가장 큰 변화는 보육료 인하임.

-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부모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와 보육료 상한선 간의 차액을 내지 않음.

〈표 18〉 보육료 차이

단위: 천원

구분	3세		4, 5세		비고
	단축형	종일형	단축형	종일형	
보육료	206	257	194	243	상위 30%
부모 부담분	9	60	17	66	하위 70%
정부 지원단가	197	197	177	177	

- 부모들은 이러한 보육료 인하분에 대하여 걱정하다는 비율이 52.6%이고 46.6%는 더 낮추어야 한다고 보육료 인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음(표 19 참조).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걱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고 더 인하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낮아졌음. 그러나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도 약2/3는 적정하다고 하는 반면에 1/3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음.
 - 2011년 조사(서문희·양미선, 2011)에서도 12시간 기준 종일제와 비교하여 오후 3시까지 이용하는 단축형은 이용시간이 1/3 정도 줄기 때문에 보육료도 그 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체로 30% 정도 보육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

〈표 19〉 보육료 인하분 적정 여부: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적정	더 인하하여야	인하폭을 낮추어야	계(수)
전체	52.6	46.6	0.8	100.0(133)
연령				
만3세	100.0	-	-	100.0(2)
만4세	55.8	43.0	1.2	100.0(86)
만5세	44.4	55.6	-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33.3	66.7	-	100.0(21)
시간제 출근	33.3	66.7	-	100.0(9)
휴직 중	100.0	-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25.0	75.0	-	100.0(4)
미취업, 구직 중	100.0	-	-	100.0(1)
미취업	58.0	40.9	1.1	100.0(88)

(표 19 계속)

구분	적정	더 인하하여야	인하폭을 낮추어야	계(수)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3.3	6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50.0	50.0	-	100.0(12)
200~300만원 미만	58.8	39.2	2.0	100.0(51)
300~500만원 미만	51.0	49.0	-	100.0(49)
500만원 이상	66.7	33.3	-	100.0(9)

- 부모들은 이러한 보육료 인하분이나 이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보육시설 운영의 측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현재 보육료는 8시간 기준 보육료로, 실제로 단축형 보육 비용이 12시간 보육비용 대비 20% 삭감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임.
- 단축형 이용으로 삭감된 보육료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던 바와 같이(서문희 외, 2010)³⁾, 다수인 45.1%가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이외 27.1%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27.1%가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표 20 참조).
- 아동연령별로는 4세아보다 5세아가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가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다소 높음.
 - 가구소득별로는 일관성은 약하나 소득수준이 15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에서 특별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그 이외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음.

3) 이용시간 다양화 제도에 대하여 부모는 상당수가 보육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이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표 20〉 삭감된 보육료의 사용처: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	가계에 보탬	자녀 보험료에 이용	계(수)
전체	45.1	27.1	27.1	0.8	100.0(133)
연령					
만3세	50.0	-	50.0	-	100.0(2)
만4세	40.7	31.4	27.9	-	100.0(86)
만5세	53.3	20.0	24.4	2.2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47.6	28.6	23.8	-	100.0(21)
시간제 출근	55.6	33.3	11.1	-	100.0(9)
휴직 중	100.0	-	-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75.0	-	25.0	-	100.0(4)
미취업, 구직 중	-	100.0	-	-	100.0(1)
미취업	42.0	26.1	30.7	1.1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66.7	16.7	1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8.3	16.7	66.7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31.4	37.3	31.4	-	100.0(51)
300~500만원 미만	63.3	22.4	14.3	-	100.0(49)
500만원 이상	55.6	11.1	33.3	-	100.0(9)

나) 특별활동 시간

- 특별활동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12% 정도가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2.3%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음(표 21 참조).
- 아동이나 부모 특성별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음.
- 삭감된 비용을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45%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특별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12%로 낮음. 이는 자녀에게 특별활동 개수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이른 귀가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외부 특별활동 등 더 비싼 특별활동으로 특별활동을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냄.

〈표 21〉 특별활동 시간의 변화: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증가	변화없음	감소	계(수)
전체	12.0	85.7	2.3	100.0(133)
연령				
만3세	-	100.0	-	100.0(2)
만4세	12.8	86.0	1.2	100.0(86)
만5세	11.1	84.4	4.4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14.3	85.7	-	100.0(21)
시간제 출근	11.1	88.9	-	100.0(9)
휴직 중	-	100.0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	100.0	-	100.0(4)
미취업, 구직 중	-	100.0	-	100.0(1)
미취업	12.5	84.1	3.4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6.7	83.3	-	100.0(6)
150~200만원 미만	-	91.7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3.9	94.1	2.0	100.0(51)
300~500만원 미만	24.5	75.5	-	100.0(49)
500만원 이상	11.1	88.9	-	100.0(9)

□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이외에서의 특별활동, 특기교육 참여 개수의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차이를 보면 <표 22>와 같음.

- 2012년 2월에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참여는 없다는 비율이 단축형 미이용 아동이 이용자에 비하여 높음. 이는 미이용자가 3세 비율이 높아서 아동이 연령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인하된 보육료를 특별활동에 사용한다는 부모가 반 정도이었음과 상통하는 결과임. 2012년 3월4)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외 특기활동은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에 많은 차이를 보임.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없다는 비율이 이용자 50.4%, 미이용자 71.2%이며, 활동 개수도 단축형 이용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더 여러 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차이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3월도 유사하게 나타남.

4) 2월과 3월을 비교하면, 3월은 새로운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특별활동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특별활동 이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 어린이집 내 참여 특별활동 개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내				어린이집 외			
	2012년 2월		2012년 3월 현재		2012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없음	74.4	86.4	76.7	77.6	50.4	71.2	40.6	64.8
1개	3.8	-	5.3	5.6	21.8	10.4	26.3	13.6
2개	15.8	9.6	15.0	12.8	14.3	11.2	19.5	13.6
3개	5.3	3.2	3.0	2.4	10.5	4.0	10.5	4.0
4개 이상	0.8	0.8	-	1.6	3.0	3.2	3.0	4.0
계(수)	100.0 (133)	100.0 (125)	100.0 (133)	100.0 (125)	100.0 (133)	100.0 (125)	100.0 (133)	100.0 (125)

□ 이는 특별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에도 반영됨.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비용은 두 집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어린이집 이외 특기활동은 단축형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에 많은 차이를 보임(표 23, 표 24 참조).

〈표 23〉 어린이집 내 참여 특별활동 월 비용

단위: %(명)

구분	2012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없음	74.4	87.2	76.7	78.4
5만원 미만	2.3	-	3.0	0.8
5~10만원 미만	19.5	8.8	18.0	16.0
10만원 이상	3.8	4.0	2.3	4.8
계(수)	100.0(133)	100.0(125)	100.0(133)	100.0(125)

〈표 24〉 어린이집 이외 참여 특기교육 월 비용

단위: %(명)

구분	2012년 2월		2012년 3월 현재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없음	50.4	71.2	40.6	65.6
5만원 미만	12.0	6.4	12.8	7.2
5~10만원 미만	14.3	8.8	18.8	8.8
10만원 이상	23.3	13.6	27.8	18.4
계(수)	100.0(133)	100.0(125)	100.0(133)	100.0(125)
X ² (df)	11.749(3)**		16.705(3)**	

** p < .01

-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1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이용자 23.3%, 미이용자 13.6%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3월에 모두 약간 증가하여 27.8%, 18.4%로 조사됨.
- 이는 3월이 새로운 학기의 시작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부모 및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

- 단축형 어린이집 이용으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30.8%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4.5%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응답함(표 25 참조).
- 또래와 보내는 시간은 15.8%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10.5%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아동 및 부모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3세와 4세를 비교하면 부모나 또래와 보내는 시간은 3세가 4세에 비하여 증가하였다는 비율이 더 높음.
 - 모의 취업특성 차이를 보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증가는 일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응답 비율이 높았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 증가는 종일제 취업모에게서 응답 비율이 높음.

〈표 25〉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변화: 이용자

단위: %(명)

구분	부모			또래			계(수)
	증가	변화 없음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감소	
전체	30.8	64.7	4.5	15.8	73.7	10.5	100.0(133)
연령							
만3세	-	50.0	50.0	50.0	50.0	-	100.0(2)
만4세	33.7	64.0	2.3	18.6	70.9	10.5	100.0(86)
만5세	26.7	66.7	6.7	8.9	80.0	11.1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19.0	76.2	4.8	38.1	61.9	-	100.0(21)
시간제 출근	22.2	66.7	11.1	11.1	88.9	-	100.0(9)
휴직 중	-	100.0	-	-	100.0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	100.0	-	-	100.0	-	100.0(4)
미취업, 구직 중	100.0	-	-	-	100.0	-	100.0(1)
미취업	34.1	62.5	3.4	13.6	73.9	12.5	100.0(88)

(표 25 계속)

구분	부모			또래			계(수)
	증가	변화 없음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감소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	100.0	-	-	100.0	-	100.0(6)
150~200만원 미만	25.0	75.0	-	8.3	75.0	16.7	100.0(12)
200~300만원 미만	35.3	58.8	5.9	11.8	70.6	17.6	100.0(51)
300~500만원 미만	38.8	55.1	6.1	20.4	73.5	6.1	100.0(49)
500만원 이상	11.1	88.9	-	33.3	66.7	-	100.0(9)

라) 아동의 정서적 안정

- 단축형 서비스 이용으로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27.8%의 부모가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표 26 참조).
- 5세아에 비하여 4세아가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이외 모의 취업 특성이나 가구소득별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음.

〈표 26〉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 이용자

구분	단위: %(명)			계(수)
	증가	변화없음	감소	
전체	27.8	70.7	1.5	100.0(133)
연령				
만3세	-	100.0	-	100.0(2)
만4세	30.2	68.6	1.2	100.0(86)
만5세	24.4	73.3	2.2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23.8	76.2	-	100.0(21)
시간제 출근	11.1	88.9	-	100.0(9)
휴직 중	50.0	-	50.0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25.0	75.0	-	100.0(4)
미취업, 구직 중	-	100.0	-	100.0(1)
미취업	29.5	69.3	1.1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	100.0	-	100.0(6)
150~200만원 미만	41.7	58.3	-	100.0(12)
200~300만원 미만	19.6	80.4	-	100.0(51)
300~500만원 미만	38.8	57.1	4.1	100.0(49)
500만원 이상	33.3	66.7	-	100.0(9)

마) 부모 만족도

-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 및 비용 인하 등 시범사업에 의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61.7%가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5.3%는 현재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음(표 27 참조).
- 시범사업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보육비용을 삭감하고 일찍 귀가하는 보육 이용시간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냄.
 - 아동연령별로는 4세아가 5세아 보다 시범사업 당시가 만족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모의 취업 특성 차이는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가구소득별로도 일관성을 없으나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이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27〉 시범사업 참여 당시와 비교한 현재 만족도: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음	별 차이 없음	현재가 더 높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61.7	31.6	5.3	1.5	100.0(133)
연령					
만3세	50.0	-	50.0	-	100.0(2)
만4세	67.4	27.9	3.5	1.2	100.0(86)
만5세	51.1	40.0	6.7	2.2	100.0(45)
모취업					
종일제 출근	61.9	28.6	9.5	-	100.0(21)
시간제 출근	55.6	33.3	11.1	-	100.0(9)
휴직 중	50.0	50.0	-	-	100.0(2)
자영업(가족 고용)	50.0	25.0	25.0	-	100.0(4)
미취업, 구직 중	-	100.0	-	-	100.0(1)
미취업	63.6	31.8	2.3	2.3	100.0(8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66.7	16.7	16.7	-	100.0(6)
150~200만원 미만	33.3	50.0	8.3	8.3	100.0(12)
200~300만원 미만	66.7	29.4	3.9	-	100.0(51)
300~500만원 미만	59.2	36.7	4.1	-	100.0(49)
500만원 이상	88.9	-	11.1	-	100.0(9)

2) 종일제 이용자 측면

- 단축형 이용시간 실시로 단축형을 선택하지 않은 종일제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수인 71.6%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였으나 13.6%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12.5%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우리 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임(표 28 참조).
- 어린이집 아동 수 등 환경에 따라 종일제 아동에게 긍·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연령이나 모의 취업,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음.

〈표 28〉 타 아동의 빨라진 귀가가 자녀 보육에 미친 영향: 미이용자

단위: %(명)

구분	남은 아동수가 적어 소외감 느낌	남은 아동수가 적어 우리 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아 좋음	별 차이를 못 느낌	비해당	계(수)
전체	13.6	12.5	71.6	2.3	100.0(88)
연령					
만3세	14.3	14.3	71.4	-	100.0(7)
만4세	18.2	9.1	68.2	4.5	100.0(44)
만5세	8.1	16.2	75.7	-	100.0(37)
모취업					
종일제 출근	16.3	14.0	67.4	2.3	100.0(43)
시간제 출근	-	-	100.0	-	100.0(9)
자영업(가족 고용)	25.0	-	75.0	-	100.0(4)
채택(가내) 작업	-	-	50.0	50.0	100.0(2)
미취업, 구직 중	-	-	100.0	-	100.0(3)
미취업	8.3	16.7	75.0	-	100.0(2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8.6	-	71.4	-	100.0(7)
150~200만원 미만	28.6	28.6	28.6	14.3	100.0(7)
200~300만원 미만	9.1	18.2	68.2	4.5	100.0(22)
300~500만원 미만	5.3	13.2	81.6	-	100.0(38)
500만원 이상	33.3	-	66.7	-	100.0(12)

주: 시범사업 미이용자(125명) 중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37명)를 제외한 나머지 미이용자(88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3)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의 의견

-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심층면접 결과, 단축형 이용 시범사업 실시의 긍정적 면을 강조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였음.
- 교사나 원장은 대부분 단축형 이용 시범사업 실시가 보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 종일반 아동 수의 감소로 오후 3시 이후에는 소수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였음.
 - 교사는 추가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날 수업준비가 가능하였음.

만 3세반 경우, 3시반 이후로 15명 중 12명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단축형 시범사업 이후로는 3, 4명만 남아 있더라고요.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음 날 수업준비 한다든가 일지 쓰는데 그 시간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업무량이 줄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 6)

- 단축형 이용시간 실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교사로 평가됨.
 - 종일반 아동 수의 감소로, 교사는 오후반 추가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준비 외 업무처리, 휴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종일반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근무 만족도도 향상되었음.

시범사업 하고 나서는 그 시간을 지켜주는 단축형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시간 이후에 교사들이 영아랑 유아를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었고, 나머지 교사들은 휴게시간도 갖고 그 다음날 수업준비도 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좋아했어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원장 3)

- 운영자도 운영 완화, 교사 수급에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함.
 - 종일반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다수의 아동을 보육하는데서 오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함.

원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지 않으니깐 그나마 안심하게 되었다

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아이들이 늦게까지 많이 남아 있으면 사고의 위험률이 높아져서 항상 불안해하시거든요. (교사 5)

-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교사채용 및 수급에 대한 원장의 부담도 낮아짐.

우리 원에서는 어떤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낳았다는 이유로, 기관에 맡겨서 종일반 아이가 10명이나 되었어요. 종일반 교사들이 너무 힘들었고, 원장들은 교사들이 혹시나 그만 두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죠. 그나마 시범사업 하면서는 교사들이 편해져서 좋았어요. (원장 7)

□ 다소나마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변화 계기가 되었음.

-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30~19:30이므로 영유아의 보육시간도 12시간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맞벌이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시범사업을 통하여 부모들은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다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중략)...우리는 문을 12시간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 아이를 12시간씩 봐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3시 반에 돌아가게 되면서, 어머니들 인식이 '굳이 12시간이 보육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변화한 것 같아요. '실제 더 필요한 아이들만 늦게까지 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어머니들이 12시간을 당연히 맡겨야한다는 생각을 잘 안하더라고요. (원장 4)

다. 추후 이용 의사

- 추후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단축형 이용자는 93.2%, 미이용자는 39.2%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단축형 이용자는 4세와 5세 부모의 재이용 의사가 약 93~94%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모취업 여부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대부분의 집단에서 높은 재이용 의사를 보였음.
 - 종일제 이용자는 연령별로 4세와 5세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나 3세아는

62.5%로 추후 이용의사가 매우 높으며,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시간제 출근 및 미취업 모의 이용의사 비율이 각각 61.5%, 57.5%로 높음.

- 이러한 응답은 이용시간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1.7%이었던 점과도 같은 맥락임.

〈표 29〉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

단위: %(명)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93.2	3.8	3.0	100.0(133)	39.2	50.4	10.4	100.0(125)
연령								
만3세	50.0	50.0	-	100.0(2)	62.5	29.2	8.3	100.0(24)
만4세	94.2	2.3	3.5	100.0(86)	36.4	52.7	10.9	100.0(55)
만5세	93.3	4.4	2.2	100.0(45)	30.4	58.7	10.9	100.0(46)
모취업								
종일제 출근	95.2	4.8	-	100.0(21)	22.6	66.0	11.3	100.0(53)
시간제 출근	88.9	-	11.1	100.0(9)	61.5	38.5	-	100.0(13)
휴직 중	100.0	-	-	100.0(2)	-	-	-	- (-)
자영업(가족 고용)	100.0	-	-	100.0(4)	40.0	50.0	10.0	100.0(10)
재택(가내) 작업	-	-	-	- (-)	-	66.7	33.3	100.0(3)
미취업, 구직 중	100.0	-	-	100.0(1)	33.3	66.7	-	100.0(3)
미취업	93.2	4.5	2.3	100.0(88)	57.5	30.0	12.5	100.0(4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83.3	16.7	-	100.0(6)	41.7	41.7	16.7	100.0(12)
150~200만원 미만	91.7	-	8.3	100.0(12)	44.4	55.6	-	100.0(9)
200~300만원 미만	88.2	7.8	3.9	100.0(51)	50.0	40.6	9.4	100.0(32)
300~500만원 미만	100.0	-	-	100.0(49)	28.0	60.0	12.0	100.0(50)
500만원 이상	100.0	-	-	100.0(9)	46.7	46.7	6.7	100.0(15)

4. 결론 및 정책제언

- 정규 보육과정을 '종일형'과 '단축형'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한 시범사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평가됨.
-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의 개념 구분이 없는 어린이집 12시

간 종일제 이용이라는 획일화된 구조를 변화시켜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보
고자 한 시도임.

□ 시범사업 결과를 아동, 부모, 교사 및 운영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 측면

- 단축형 이용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40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남.
- 단축형 이용 아동의 이른 귀가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 증가나 정서적 안정의 개선 비율은 30% 정도이었음.
- 이른 귀가와 더불어 줄어든 부모 부담액의 상당부분은 어린이집 외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단축형 보육아동의 이른 귀가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늦게까지 남아 있는 종일제 아동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보육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부모는 보육료 부담이 완화되어 그 비용을 아동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음.
- 운영자는 늦게 남아 있는 아동 수 감소로 운영 부담이 다소 낮아지고, 교사는 아동의 이른 귀가로 교사의 보육 부담이 줄어서 수업 준비, 휴식 시간이 확보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교사 수급도 개선됨.

□ 그러나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음.

○ 사업의 설계

- 단축형과 종일제의 개념 정의에서 종일제 12시간을 그대로 둔 채 보육시간 8시간을 단축형으로 설정한 것이 교사의 인건비 반영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음.
- 단축형과 종일제의 보육료 수준의 합리성이 부족함. 사실상 오후 3시반 귀가 아동에게서 삭감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오후 간식비와 일부 관리 운영비이므로 20%에 미치지 못함.
- 단축형 보육료 감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의 변동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시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함을 전제함.

- 보육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형 보육은 보육료를 삭감해주고 8시간 이상 보육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더 받거나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어야 자생적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함.
- 시범사업의 결과
 -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의 이용시간의 차이가 미미함. 2월에는 단축형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5시간 38분으로 종일제 아동 7시간 5분에 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짧음. 3월에는 각각 6시간 16분, 7시간 57분으로 역시 1시간 4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시범사업 전후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이용시간 행태에 부모 부담 비용을 낮추어 준 측면이 있음.
 - 오후에 보육대상 아동이 다소 감소한 교사나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이를 아동에게 특별활동비 등으로 더 투자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동은 일부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시간 획일화 제도 개선은 전반적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서문희 외 2010; 서문희·박수연, 2008).
- 이용시간 다양화는 전체적인 보육 이용시간과 비용 지원 체계에 대한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취업모를 전제로 하는 12시간 종일제 보육이라는 명분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보육이라는 접근이 필요함.
 - 현재의 보육료는 8시간 보육으로 기본 보육시간을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육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의 설계가 있어야 함.
 - 8시간이나 그 이상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어야 함.

참고문헌

- 김명순·김혜금·안현숙·이윤선(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2011).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안내.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제 개편방안.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